

지자체 특혜성 수의계약 개선 시급

법령 확대 해석·도급 금액 부풀리기 등 여전
보성산림조합, 불투명 회계처리 고소·수사

순천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 의혹 보도(본보 5월 11일자 9면)와 관련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특혜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공사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원칙 없는 특혜성 계약이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선 시·군 계약부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제25조 1항 제8호 사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전한 협동조합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산림조합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가능하다.

하지만 각 지자체 계약부서 공무원들은

법령을 확대해 해석하거나 인근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명분을 들어 아무 거리낌 없이 계약 한도를 높이거나 도급금액을 마음껏 부풀린 특혜성 수의계약(1인 견적)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마다 공사금액과 한도 여건 등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남 동부지역 7개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한 각 시·군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말까지 1년 동안 순천시 47건에 48억여원, 여수시 44건에 37억여원, 광양시 21건에 31억여원, 고흥군 19건 27억여원, 보성군 40여건 40억여원, 구례군 23건 42억여원, 곡성군 47건 61억여원으로 총 221건 282억여원이 지자체와 산림조합간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산림산업 분야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제한액(2,000만원 이하)은 물론 관내 업체로 지

역을 제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견적)에 의한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도급금액 8,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8,000만원 이상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자체장의 결심이나 조합장의 처신에 따라 사업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잖은 부작용과 함께 일선 산림조합들이 지방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절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수의원까지 거리낌 없이 수의계약이 실행되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보성군 산림조합의 경우 경쟁자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실시하고도 적자를 봤다가 아니라, 감사도 납득하지 못하는 어차구니없는 결산 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낸 비리를 사법당국에 고소를 했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광주지검 특수부가 산림조합과

결탁해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화순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지난 6월 전격 구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산림조합간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가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거나 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제한금액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일선 지자체 계약부서 공무원들은 모든 계약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을 바로 알고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산림사업자 박모씨(56)는 "정상적으로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자들에게만 엄격한 수의계약 도급 제한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선 시·군 지자체 계약 공무원들은 규정을 몰랐다가 아니라 약한 조항을 개선해 군민을 위한 조치였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곡성군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로당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 등 복지 그물망을 촘촘히 짜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복지 그물망 촘촘히 짜다

경로당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 등 본격화

65세 이상 인구가 34%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 곡성군이 촘촘한 노인 복지 그물망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곡성군은 경로당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곡성군은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다. 노인 인구 30명당 1개꼴로 경로당이 있는 셈이니 곡성군의 모든 노인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경로당에 소화기 비치, 고효율 냉방기 공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사시사철 집보다 편안하고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매주 목요일 희망기동서비스 사업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팀이 의료취약지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경로당을 벗어나도 촘촘한 그물망 복

지는 계속된다. 노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목욕탕이 없는 면 지역에 총 9개소의 공중 목욕장을 만들어 매주 2~3회 운영한다.

결실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식당을 운영해 양질의 무료급식을 제공해 건강을 챙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직접 도시락을 짚고 배달해주면서 노인들의 안부도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마을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원 등 자원봉사자를 독거노인과 1대1로 결연을 맺어준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지리산 추석선물기획전

지역별 우수 식품 20% 할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지리산 추석선물기획전'을 오는 9월 8일까지 지마켓 PC버전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지리산 추석선물기획전은 다양한 카테고리 구성으로 구매 편의성을 강화했다. 지리산권 3도(전남, 전북, 경남) 7개 시군(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의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식품을 비롯해 각 지역별 우수 식품들을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추석 기획전에 맞게 명절 시즌 판매 데이트와 구매 후기, 인기상품 등을 바탕으로 건강 지리산의 바른 먹거리 중 엄선된 명절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3도 7개 시군을 품은 청정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 건강 먹거리까지 지리산을 알리고 함께 지리산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마케팅 하나로 지리산 추석선물기획전이 기획됐으며 이번 기획전에 지리산권 농업경영체 온라인 판로개척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이호준 본부장은 "지마켓 지리산 추석선물기획전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리산권 우수한 식품을 알리고 농업경영체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보성군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남도병의 중심 보성군이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보성군은 최근 사무기기, 농기계, 보안시스템 등 20억원이 넘는 일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왔으나, 앞으로 일본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

고, 공사 발주 등 보조사업 추진에서도 보조사업자가 공감·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민간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보성군은 범군민 운동의 하나로 기관·사회단체와 함께 일본 여행 안가기, 일본제품 안사고 안쓰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캠페인 수준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개를 위해 불매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일본기업이나 일본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의병 정신으로 지켜진 곳으로 군민들이 자발적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펼쳐왔다"며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우리 군도 전국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확산에 동참해 일본의 조속한 수출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클릭! 고흥 소식



곡성 2030 청년농 역량강화 워크숍

곡성군은 최근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2030세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농업인 40명이 참여해 농업경영컨설팅 전문가로부터 경영

장부 사용법 및 온라인 유통의 중요성을 학습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품목에 따라 상세하게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구례-국립백두대간수목원 종자보존 업무협약

구례군은 최근 경북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종자보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리산 야생종 종자보존 및 종자 산업 활성화, 생물 다양성 활용 등 각 기관의 상호발전 협

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생물종 다양 유지의 중요성과 지리산권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고흥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고흥군은 2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의 미래 비전과 군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정책자문위는 인구교육·문화관광·농

수축산·군민복지·지역개발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군은 전문적 지식과 지역 실정에 밝은 대학교수·연구원·지역전문가 등 25명을 위촉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